

ROUND TABLE

충주음악창작소
라운드테이블

음악 제작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020.11.26.(목) 오후 2시~5시
충주음악창작소

주최_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주관_ 충주음악창작소 후원_ 충주시

발제자료집

주제

음악레이블-공연장-마켓-축제,
음악 생태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뮤지션과 세상 관계맺기

내용

인디레이블_ 윤동환 대표 <엠와이 뮤직>
“2021년 매니지먼트 방향, 변화해야 하는 뮤지션”

음악공연장_ 박정용 대표 <벨로주>
“지역 음악 씬 거점으로서 공간[공연장]의 역할 -홍대 앞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마켓_ 이수정 프로듀서 <잔다리페스타>
“음악이 누네티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켓 이해와 쇼케이스 활용법”

음악축제_ 김미소 총감독 <DMZ피스트레인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라인업, 축제와 아티스트의 관계맺기”

사회: 이동민 <충주음악창작소 소장>

지역 음악 씬 거점으로서의 공간(공연장)의 역할

- 홍대 앞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용 (벨로주 대표)

(시즌 I 2008-2011)



Cafe VELOSO
Sunday 6PM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Door Open 4시)
15,000원 (+1 Free Drink)

3월 1일(일) 부터 시작

공연안내/예약 : <http://cafe.naver.com/veloso>

3/1(일)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 시와
3/8(일) 이장혁(band) + 핑크 엘리펀트
3/15(일) 강허달림(band) + 이영훈
3/22(일) 우주히피 + 핑카프릭부스다
3/29(일) Gentle Rain (vocal 장정미)



(시즌 II 2011-2013)



(시즌 III/IV 2014-2020) 망원/홍대



공간, 장소, 인디 씬, 인디 음악 생태계

공간은 비어있는 곳
장소는 어떤 일(사건)이 벌어지는 곳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 때,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그곳은 '장소로 발전'한다. - 이 푸 투안

씬은 특정한 사건이 꾸준히 벌어지는 장소(영역)
생태계는 씬이 지속되어지기 위한 조건이자 상태.

한국 인디 음악 씬에서의 장소/역사성 – 홍대 앞을 중심으로

1995-97

빵(모던록), 드럭(펑크), 에반스(재즈) 등 클럽 오픈 - 록 음악 중심

2002-2008

파스텔/해피로봇, 벨로주, 상상마당 오픈 - 어쿠스틱 음악의 발전

2012

두리반 - 젠트리피케이션의 공식화와 자립음악생산조합

- > 공간의 생성, 사건의 발생과 장르, 무브먼트, 씬의 변화는 연결된다.
- > 문화적 장으로서의 공간이자 생태계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공간인 라이브 클럽의 중요성.

장소가 씬과 생태계에 기여한 사례 i (공공).

부산음악창작소

2018년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헬로루키 우승.
서울 외 지역 음악 씬의 가장 대표적 성공 사례.
단순한 수상이 아닌 씬의 형성. 창작소의 역할. (담당자 한 명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2015년 설립)

공연예술가들의 사랑방. 2019년 7~8, 11~12월 이용률 99%.
새벽 1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심야운영'이 핵심.

장소가 싼과 생태계에 기여한 사례 ii (협업).

라이브클럽협동조합

홍대 앞에 있는 10여 곳의 라이브클럽과 공연장의 협동조합.
매 월 마지막 주 라이브클럽데이.

SIMf (Seoul Indie Music festa)

라이브클럽협동조합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하는 타운형 페스티벌. 대구부산서울제주교류전 등...

지역음악창작소네트워크? 각 지역의 대안 공간 네트워크?

모든 장소의 핵심은 지속성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홍대 앞 대안 공간의 텐텐절, 하자센터의 50년 임대.
그저 단순히 지속되게 만드는 지원도 굉장히 중요함.

장소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시작함.
그게 지속될 때 씬이 생겨남.

씬은 조성되지 않음, 첫 시작은 공간을 지속키는 것.
그게 지속되게 유지하는 것(지원)이 필요함.

ROUND TABLE

충주음악창작소
라운드테이블

**음악 제작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020.11.26.(목) 오후 2시~5시
충주음악창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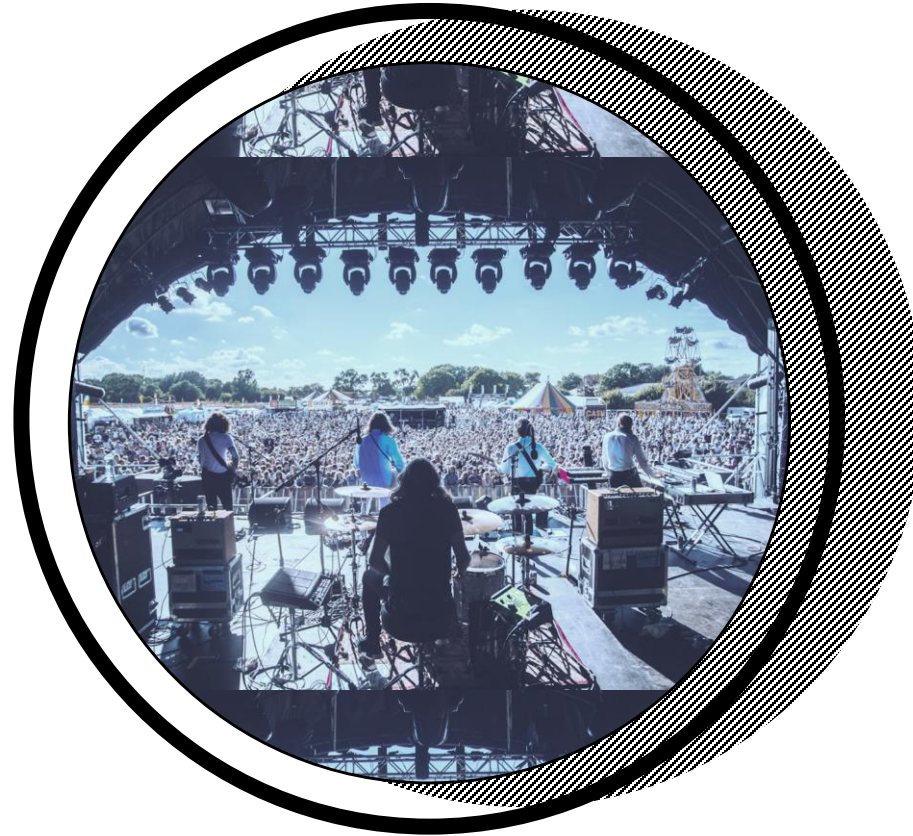


음악이 누네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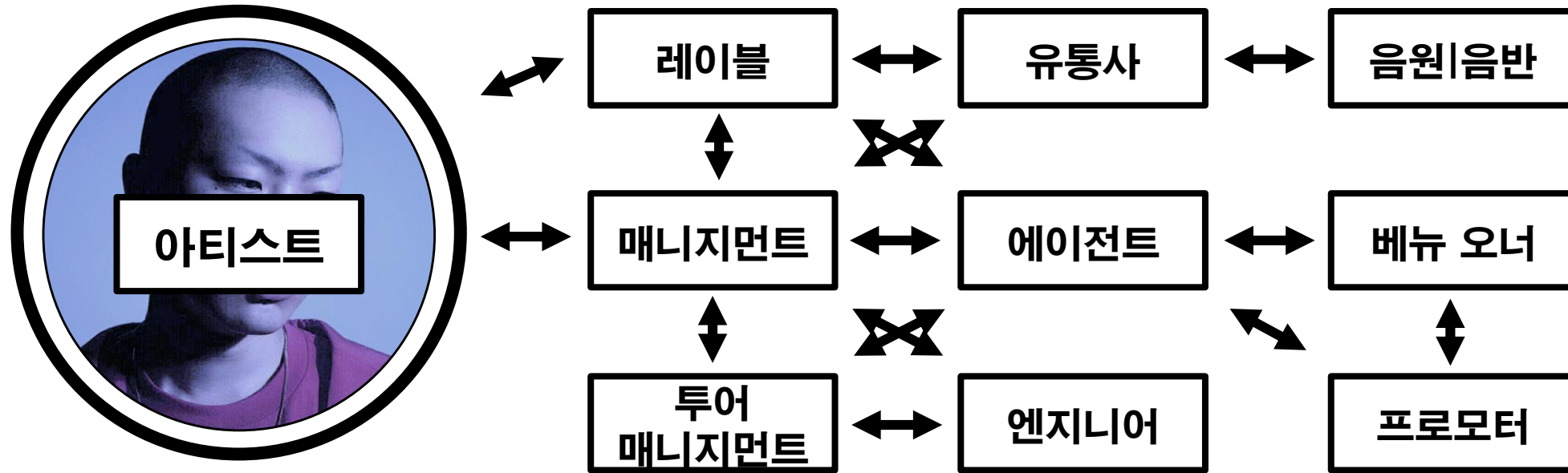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켓 이해와 쇼케이스 활용법

이수정 (잔다리페스타 사무국장)

CECILIA@ZANDARIFESTA.COM



글로벌 음악-공연 시장의 이해





당신의 상상

현생...





이정도라면?

공연 부킹 BTS

- 티켓파워 (인지도)
- 전체 라인업과의 조화 (슬롯의 성격)
- 라이브 퍼포먼스
- 투어 멤버 수
- 에이전트의 영업력

공연 부킹을 위한 기본 세팅

- 스포티파이 | 밴드캠프 관리
- 고퀄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
- 영문 바이오그래피
-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 유튜브뮤직)
- 공연 포트폴리오 (이전 공연 경력)
- 영문 리뷰
- 매니지먼트 인력



쇼케이스 및 음악마켓 활용하기

대표 쇼케이스 및 음악마켓

SOUTH BY SOUTH WEST
(SXSW)

미국

THE GREAT ESCAPE (TGE)

영국

WORLD MUSIC EXPO(WOMEX)

유럽

TRANSMUSICALES

프랑스

ZANDARI FESTA

한국

MU:CON

한국

LUC FEST

대만

AND MANY MORE...

쇼케이스 프로그램

- 아티스트 쇼케이스
- 국가별 무대
- 에이전시별 무대

컨퍼런스 프로그램

- 글로벌 및 지역 동향
- 키노트 | 라운드 테이블 | 강의
- 정보와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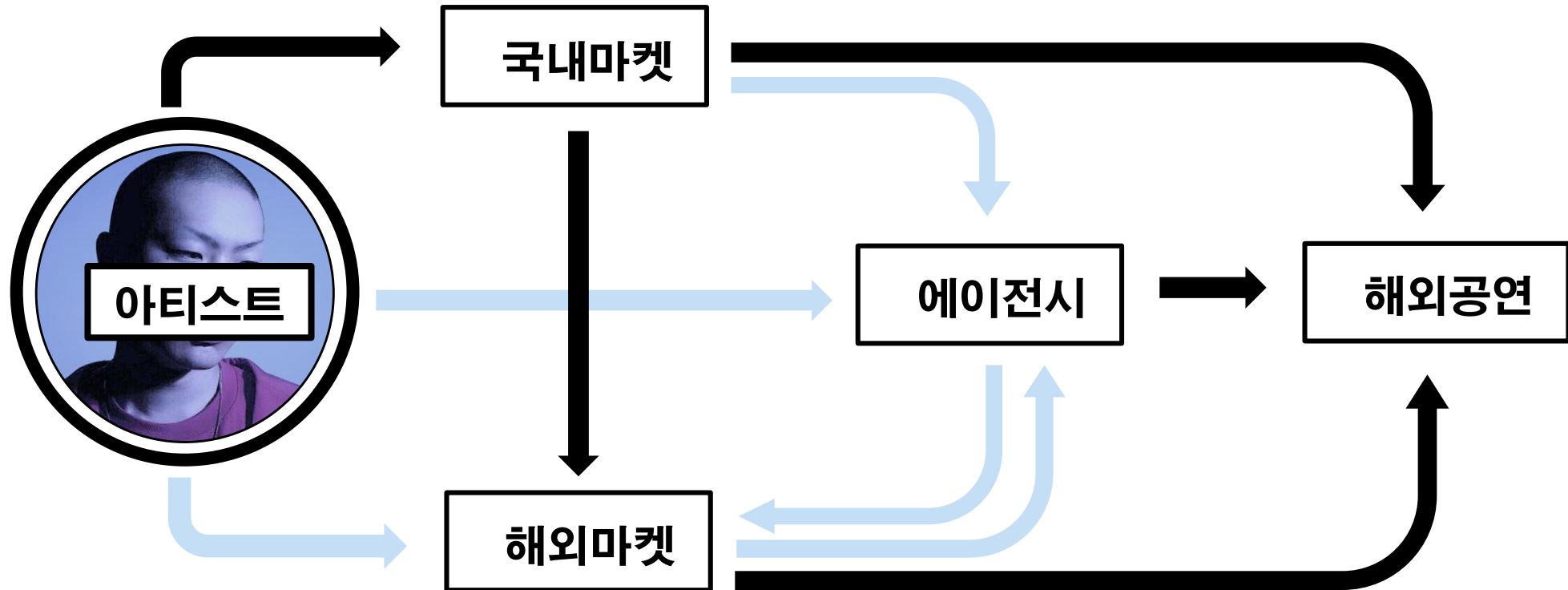
네트워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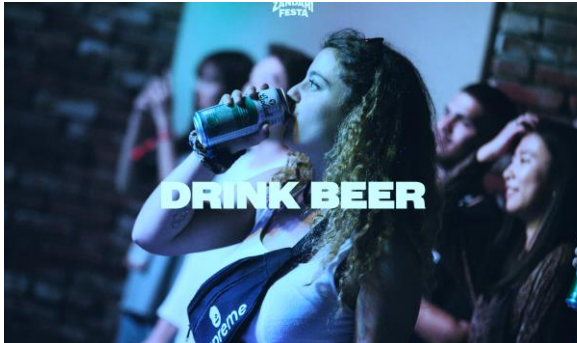
- 믹서, 네트워킹 파티
- 스피드 미팅 | 비즈매칭
- 웹 혹은 앱 커뮤니티

기타 프로그램

- 기타 공연 및 부대 프로그램
- 비공식 파티

해외 공연 프로세스





음악가로서 글로벌 마켓을 꿈꾸며 잊지 않아야 할 것들

1. 경험을 넓히고 싶다면 내 음악의 색을 더욱 깊게
2. 레이블, 유통, 에이전시, 페스티벌, 공연장 등 나에게 유효한 정보 수집
3. 돈을 받는 행사가 아닌, 주체적인 참가로 얻어내야 할 것 알기
4. 체력, 사교성, 꾸준한 인맥 관리
5. 내가 있는 곳에서 크루를, 씬을, 산업을 만드는 데 함께 하기

ROUND TABLE

충주음악창작소
라운드테이블

**음악 제작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020.11.26.(목) 오후 2시~5시
충주음악창작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라인업 축제와 아티스트의 관계맺기

김미소(피스트레인 총감독)



**피스트레인은
음악을 통해 평화를 경험하는,
동시대 평화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비상업적이지만 대중친화적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피스트레인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 강원도 철원 DMZ 일원에서 개최되는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일년에 단 5일, 피스트레인에서 만큼은

“음악을 통해 정치, 경제, 이념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스트레인은 우리가 살아가며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들을 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발견하고자 하며,
자유, 평화, 인권, 관용 등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DANCING FOR A BORDERLESS WORLD!

**음악을 통해 평화를 노래하고, 소신과 신념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우리가 인식하는 한반도.
 시대가 열망했던 음악을 기억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의 시작.
 시대를 담은 음악은 계속되고 이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위의 빨간 버튼을 두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던 2017년 가을, 한국에서는 흥대의 작은 음악 축제 <잔다리페스타>가 열렸다. 그곳에 초청된 해외 주요 음악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걱정을 드러내며 한국에 가도 되는지 우려의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65년간의 휴전 상황에서도 무탈하게 살아왔듯, 그해 가을 잔다리페스타는 잘 치러졌고, 마지막 날 참여했던 음악 관계자들은 함께 모여 DMZ 투어를 도모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10여 명의 해외 페스티벌 메이커들이 DMZ를 방문했고, 영국의 글라스턴베리 페스티벌 메인 부커 마틴 엘본(Martin Elbourne)은 말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이다.(Right time, Right place)" 비무장지대의 철조망과 기차역 그리고 잔디밭은 1970년대 평화를 부르짖으며, 자발적으로 생겨난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데자뷔를 불러왔고, 마틴 엘본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잔다리페스타>에 마지막 남은 냉전 지대에서 진짜 평화의 메시지를 외치는 음악 페스티벌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ZANDARI
FESTA**



민간에서의 자발적 시작, 공공의 지원과 협력.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사이 평창동계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평화의 무드, 평화를 상기. 교감과 참여.

01

2017.09

지금 여기 DMZ에서
 평화음악 페스티벌을!
 #잔다리페스타
 #마틴엘본
 #DMZ 투어
 #평화음악페스티벌
 #한·영 조직위원회



02

2017.12

철원에서 피스트레인!
 파트너를 찾아라!
 #철원군
 #강원도
 #서울시
 #피스트레인



03

2018.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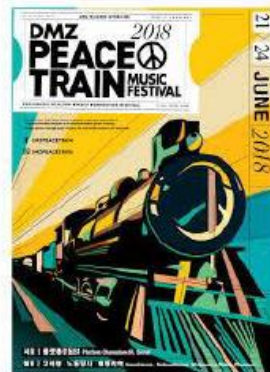
특급반전 평화의 물결
 피스트레인 개최확정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선수단합동입장
 #남북정상회담
 #피스트레인기자간담회
 #섹스피스톨즈



04

2018.06

제 1회 피스트레인 개최
 #피스트레인
 #노동당사
 #월정리역
 #섹스피스톨즈
 #이승환
 #장기하
 #유아인



05

2019.06

제 2회 피스트레인 개최
 #벨벳언더그라운드
 #정태춘 박은옥
 #혁오
 #잔나비
 #우정의무대
 #철로의 노래



피스트레인은
건강하고 활기찬 **멋을 즐기는 사람들**
오락과 일탈을 넘어 **가치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입니다.

1

피스트레인에는 헤드라이너가 없습니다

시대가 열망했던 음악을 존중하고, 세상에 숨겨진 좋은 음악을 발견합니다.

2

피스트레인은 차별, 규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들고,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3

피스트레인은 애써 멋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탐구합니다.

PROGRAMS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기록과 공유

6.12-14

고석정 메인공연



고석정

12개국 40여팀의 공연

- 피스트레인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동시대 상징적인 뮤지션들의 릴레이 공연
- 피스트레인 메인사이트인 고석정 유원지 2개 무대에서 공연 진행

6.12-14

스페셜 프로그램



노동당사

소이산/노동당사/백마고지GP

- 철원의 근현대 역사의 시·공간성과 스토리가 담긴 공간 발굴
- 접경지역의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와 기획 콘서트 진행

6.12-14

부대 프로그램



분수무대

DJ 무대/커넥트 라운지

- 고석정 분수무대에서 펼쳐지는 SCR(Seoul Community Radio)의 DJ 무대
- 강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마켓, 전시, 체험,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6.10-11

사전프로그램



플랫폼창동61

국제 컨퍼런스/쇼케이스

- 평화, 음악, 도시를 주제로 하는 글로벌 뮤직 컨퍼런스
- 매 해 국제교류 도시를 선정, 그 도시의 음악, 평화, 문화를 경험해 보는 뮤직 쇼케이스

PEACE TRAIN PROGRAM

프로그램 방향

- 헤드라이너 중심의 상업 페스티벌에서, 문화예술 가치 중심의 음악페스티벌로
- 세대와 지역 간의 존중과 연대 가능한 음악페스티벌로
- 거대한 담론이 아닌 일상에서의 발견, 작은 실행이 가능한 평화로
- 음악만 중심인 페스티벌이 아닌 메시지가 있는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로

라인업 원칙

- 자기 확신과 색깔이 분명한 뮤지션
-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라이브 중심의 뮤지션
- 음악적 발견을 전해 줄 수 있는 뮤지션
- 가능한 국내 최초 소개하는 뮤지션
- 피스트레인의 '평화'적 가치와 상반되지 않는 뮤지션

Line up Curation

1st
**The Bands
of Peace**

2nd
**Legendary &
Impressive**

3rd
**Worldwide
Beat**

4th
**Peace out
Spots**

5th
**Last
Call**

2018

피스트레인과 함께한 아티스트

Glen Matlock · 이승환 ·
크라이넛 · 장기하와 얼굴들
· 강산에 · Phum Viphurit ·
노선택과소울소스 · 빌리카터 · Mitsume
· 아도이 · 갤럭시익스프레스 ·
블루스파워 · Kid Francescoli ·
Vaudou Game · 이디오테잎 · TXAKO
· Zenobia 키라라 히치하이커 · 이상순
· Joyce Jonathan · 세이수미 ·
Anoice · 라이프 앤 타임 · 방백
Colonel Mustard and the Dijon 5 ·
새소년 · 씽씽 · 잠비나이 · No Party
for Cao Dong · 차승우 · 차진엽 ·
콜렉티브 A · 선우정아

글렌 매트록(영국)X크라이넛X차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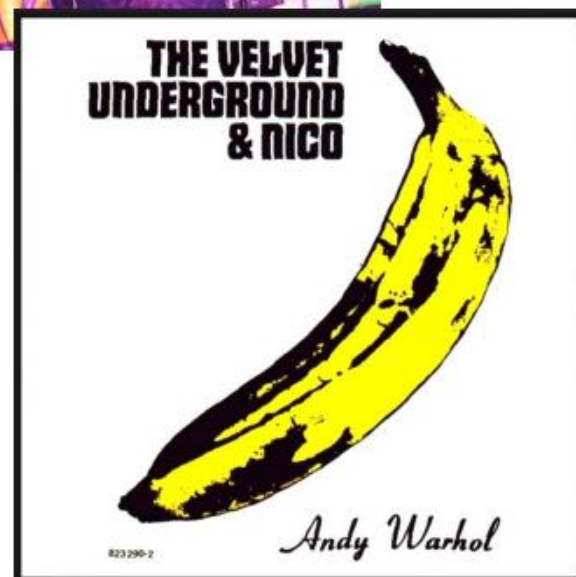


시대가 열망했던 음악, 숨겨진 좋은 음악, 평화에 다가서는 음악!

2019

John Cale(GBR) ·
崔健(Cui Jian) · 정태춘 &
박은옥 · 술탄 오브 더 디스코 ·
혁오 · Fujiya & Miyagi(GBR) Last
Train(FRA) · Lucie, too(JPN) ·
Palmy(THA) · 잔나비 · Elephant
Gym(TWN) · Iceage(DNK) · Little
Big Bee(JPN) · Mongooz and the
Magnet(HUN) · Peace(GBR) ·
Seun Kuti & Egypt 80(NGA) ·
메킷레인 · 킹스턴 루디스카 ·
Guampara Music(from Havana) ·
김사월X김해원 · 소년 · 데드버튼즈 ·
헬리비전X김오키 · 스텔라장 · 죠지 ·
아마도이자람밴드 · 구름열차

존 케일(영국) X 황소윤



2020

7.18 SAT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2020 7.19 SUN



디엠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0

PEACEFUL BODY,
DANCEFUL MIND!

강원 철원군
고석정 일대

6.12 FRI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2020 6.14 SUN

CAPSULA | FICKLE FRIENDS | HANGGAI | KALLEMI
KANEKO AYANO | KERRI WATT | KIKAGAKU MOYO
PANNONIA ALLSTARS SKA ORCHESTRA | STARCRAWLER
THE BLINDERS | THE HORMONES | THE INSPECTOR CLUZO
교정 GYOJUNG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GOONAM
그루브 트레인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GROOVE TRAIN
& AMBIGUOUS DANCE COMPANY | 김오키 새턴발라드
KIM OKI SATURN BALLAD | 까데호 CADEJO | 나운선
NAH YOUN SUN | 드링크소년소녀합창단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 디제이디오씨 DJ DOC | 디티에스큐 DTSQ
릴체리 & 골드부다 LIL CHERRY & GOLDBUUDA
백현진 BEK HYUNJIN | 별보라 BYEOL BO RA | 설 SURL
애니멀 다이버스 ANIMAL DIVERS | 애리 AIRY
이날치 LEENALCHI | 이센스 E SENS | 제이클레프 & 김아일
JCLEF & QIM ISLE | 창모 CHANGMO
쿤타 & 루드페이퍼 KOONTA & RUDE PAPER
키라라 KIRARA | PEACE DJ EXPRESS W/ MIXMIX & SCR

디엠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0

PEACEFUL BODY,
DANCEFUL MIND!

강원 철원군
고석정 일대

7.18 SAT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2020 7.19 SUN

7.18 SAT
교정 GYOJUNG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GOONAM
그루브 트레인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GROOVE TRAIN & AMBIGUOUS DANCE COMPANY
김오키 새턴발라드 KIM OKI SATURN BALLAD
드링크소년소녀합창단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디제이 디오씨 DJ DOC
릴체리 & 골드부다 LIL CHERRY & GOLDBUUDA
백현진 BEK HYUNJIN | 설 SURL
애니멀 다이버스 ANIMAL DIVERS | 이센스 E SENS
키라라 KIRARA | PEACE DJ EXPRESS W/ MIXMIX & SCR
7.19 SUN
까데호 CADEJO | 나운선 NAH YOUN SUN
디티에스큐 DTSQ | 별보라 BYEOL BO RA
애리 AIRY | 이날치 LEENALCHI | 잠비나이 JAMBINAI
제이클레프 & 김아일 JCLEF & QIM ISLE | 창모 CHANGMO

디엠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0

PEACEFUL BODY,
DANCEFUL MIND!

강원 철원군
고석정 일대

Legendary 시대가 열망했던 음악, 지금까지 활동하는 뮤지션



Impressive Moments 숨겨진 음악 발굴, 프라임 타임 소개



World Wide Beat 숨겨진 음악의 발굴, 국적 및 장르 초월



PEACE TRAIN VIBE 피스트레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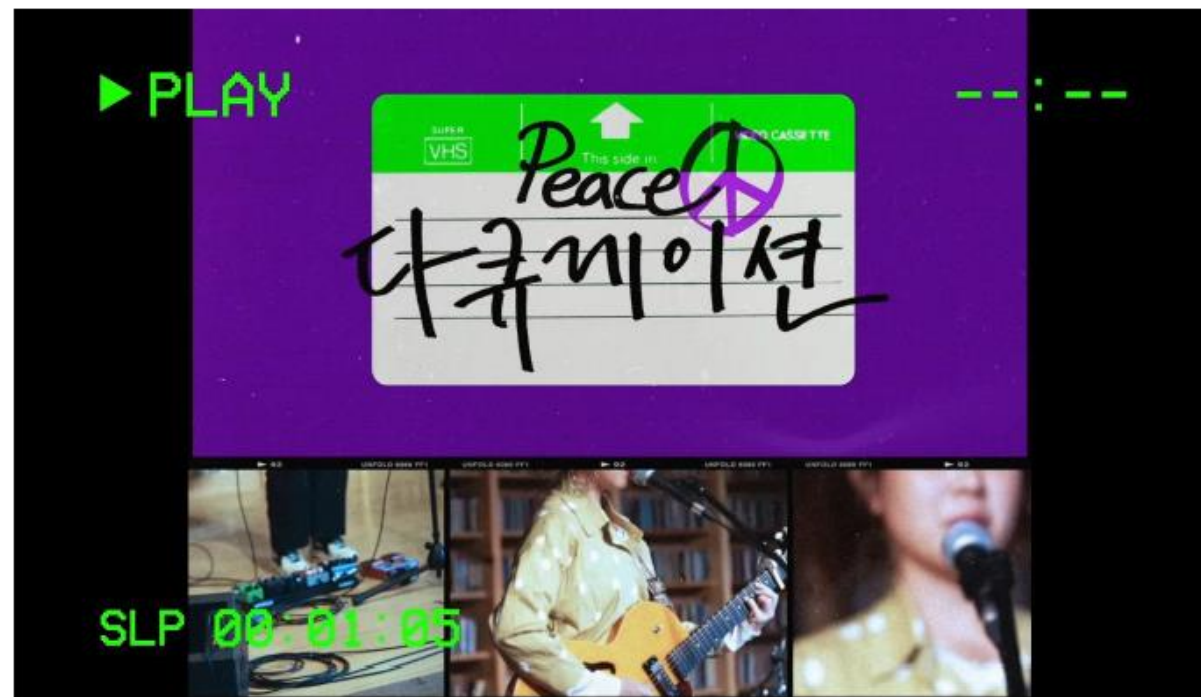
PEACE TRAIN VIBE 피스트레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



PEACE DACURATION



꾸준히, 많이 앨범 작업을 하는 김오키이지만, 페스티벌 무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왜 그런 것일까. 피스트레인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철원의 무대에서는 김오키를 주목했다. 2019년에는 '헬로비전 X 김오키'의 무대로, 올해는 '김오키 빼킹매드니스'로 무대에 서는 김오키가 말하는 음악, 평화 그리고 사랑 이야기.



‘철원에서 한다, DMZ 페스티벌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상징이 있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해요. 너무 재밌는 페스티벌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공연 섭외가 와서 그때도 기뻐서 소리 질렀거든요. 기대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그만큼 야외의 분위기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DMZ를 떠올리면, 영화의 이미지가 매우 커요. <공동 경비 구역 JSA>를 워낙 어렸을 때 봤어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가의 소속이라기보다, 일단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니, ‘인간’ 적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TALK ON STAGE

킹스턴 루디스카

날아다니는 곤충이 많은데요. 애네들이 참 부러웠어요. 곤충들은 남북 경계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작은 곤충마저도 부러운 오늘. 우리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술탄오브더디스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한글로는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고 영어로는 'Dancing for a Borderless World!' 래요. 저희의 미션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춤추게 만드는 거!

정태춘 박은옥

아마도 15년 혹은 20년 전에 철원에 와본 적이 있었고요. 어느 신문사에서 진행하는 민통선 기행에 참여하면서 그 즈음에 만들어서 민통선 안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곡으로 '민통선의 흰 나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Seun Kuti & Egypt 80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지금 남한에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코리아에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원주민이며, 차별과 혐오, 단절을 부추기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자꾸만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에 와 있습니다. 북한, 남한은 이름에 불과할 뿐, 코리아는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Xavi Sarria

우리는 정의, 평화, 사랑, 연대를 위해 1993년부터 음악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고, 파시즘에 반대합니다. 남북한은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다해 따라 불러주세요.

Mongooz and the Magnet

우리는 모두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들이 많고, 편 가르기 보다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많으며, 우리의 마음은 혐오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사랑이 가득합니다. 희망은 꺼질 수 없는 등불 같으며, 음악은 칼보다 강합니다.

교감, 공감, 상생의 하모니



- ✓ 페스티벌 ↔ 아티스트 상호이해
- ✓ 목적과 취지의 공감과 교감
- ✓ 무대 위 환대, 무대 밖 환대
- ✓ 남다른 무대 - 발견 - 확산
- ✓ 루키에서 레전드로
다시 보고 싶은 아티스트
다시 찾고 싶은 페스티벌